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4. Vol. 17, No. 2, 213-232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최 임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성역할 정체감의 전체적인 발달 추이를 알아보고, 개인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적응과 시대 변화에 적절한 새로운 성역할 교육의 근거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성인 초기 성역할 정체감의 안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간격의 반복 측정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의 중학생 202명, 고등학생 200명, 대학생 196명 등 총 598명이었다. 반복측정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대학생 145명이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성역할 정체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분화 유형에서 그 외의 유형 즉, 남성성·여성성·양성성 유형으로 발달해 간다.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미분화 유형, 고등학생은 남성성 유형, 대학생은 양성성 유형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의 미분화 유형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여성성으로 발달해간다. 둘째, 성인 초기 성역할 정체감의 안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반복 측정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 비율은 1년 사이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낸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 유형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적은 변화만을 보인 반면, 미분화 유형과 양성성 유형에서 주된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이 대학 시기 이후에도 계속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발달, 성역할 교육

개인의 발달단계와 시대, 문화에 따라서 성역할 개념은 변화한다. 성역할은 어떠한 행위나 태도가 남녀별로 적절한가를 말하는 문화적 기대치를 말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성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을 성역할 사회화라고 한다. 이 사회화과정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된다. 성역할 정체감이란 사회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규정하는 태도, 특성, 흥미 등을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된 결과이므로 개인에 따라 동일시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개인의 생물학적인 성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사회

교신저자 : 최임숙, E-mail: yeosori@netian.com

적, 문화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 내에서 형성 발전하는 개념이다.

Bem은 성고정화된 행동에 대한 동조가 약화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양성성 개념을 성역할 연구에 도입하였다(Bem, 1974; Kaplan & Sedny, 1980). 양성적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새로운 성역할 연구는 양성성 측정도구의 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 BSRI(Bem Sex Role Inventory)는 양성성을 측정하기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검사이다.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단일 연속선상에 있는 양극적 개념이라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측정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여성적인 소년은 정상적인 성역할 발달에서 일탈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치료를 실시하였다(Bates, Bentler, & Thompson, 1973). 그러나 전형적인 성역할이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종래의 생각들을 반박하는 증거는 비전형적 성역할, 즉 tomboy에 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Tomboy 연구는 성차의 원인과 발달 특성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Bailey, Bechtold, & Berenbaum, 2002). 이 연구들은 비전형적 성역할의 획득이 적응에 도움을 주었으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갖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ecrist, 1996; Sweig, 1996).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게 한다고 주장한다(Doescher & Sugawara, 1990). 심지어 자신의 생물학적 성역할 특성에 일치하려고 시도하는 남아는 적응상의 문제를 더 갖게 된다. 즉,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연한 성역할 개념은 긍정적인 적응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에서는 그러한 특성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역할 교육의 근거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어느 한 성의 특성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양성의 특성 중 사회 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모두 중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응과 성취를 도와야 할 것이다(심미옥, 1998).

한편, Josselson(1987)은 여성의 자아 정체감 발달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12년이 흐른 뒤에도 대학시기 동안 확립한 정체감 상태가 대체로 유지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대학 졸업 후에는 정체감 상태에서의 변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학 시기가 정체감 확립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장휘숙, 1999). 김형태(1989)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동안 모든 하위 영역에서 크게 발달한다고 보고하고, 이러한 자아정체감 성취가 청소년기 이후까지 연장되는지 혹은 평생동안 성취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아 정체감의 하위요소로서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 추이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관련지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즉, 성역할 정체감은 성인기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면서, 10년 후에도 54%의 사람들이 동일한 정체감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Hyde, Krajnik, & Skuldt-Niederberger, 1991). 그러므로 성인기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 연구는 정체감의 안

정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간격의 반복측정을 실시하여 성역할 정체감의 성인기 발달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물학적 성차의 엄격한 구분 보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가 바람직하다면, 개인을 구분하는 범주변인으로서 생물학적 성별 변인 이상의 역할을 하는 대체 준거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성역할 정체감 변인은 생물학적 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적절한 준거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여러 연구 변인들을 설명하는데 있어 남녀 차이보다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은옥, 박영숙, 2000; 송은경, 1994; 유계식, 이재창, 1997; 이재창, 임용자, 1995; 조아미, 2002; Karniol, Gabay, Ochion, & Harari, 1998; Kichmeyer & Bullin, 1997; Lundeberg, Fox, Brown, & Elbedour, 2000;).

생물학적인 요소와 사회화는 성역할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성역할의 측면들 중 많은 것이 생물학적인 것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사회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엄격한 성역할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성차별 주의자'라고까지 표현되는 아동 초기를 지나 아동 중기에 이르면, 유연성이 증가하고 성정형화된 성격 특질에 관하여 광범위하면서 성인과 유사한 지식을 지니게 된다(Best, Williams, Edward, Giles, & Fowles, 1977; Williams, Bennett, & Best, 1975).

한편,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특성은, 남아는 3학년과 5학년간에 남성성에서 변화가 없었지만 여아는 3학년에서 5학년이 됨에 따라 여성성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변명숙, 성옥련, 2000). 이 시기의 여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성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아들이 미래에 자신들이 갖게 될 사회적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지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과 가장 관계가 있는 가정환경 변인은 어머니의 학력이었다(유가효, 정영순, 1988). 또한,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에 대한 연구는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남녀의 심리적 특성이 보다 늦게 발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가사활동과 직업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학생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여학생에게서만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고정관념의 유지 또는 변화가 인지적 발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 사회적 관례 수용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유가효, 1994; Stoddart & Turiel, 1985). 즉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이 유아기에 자신의 성을 알고 성항상성을 획득한 후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그 후 구체적 조작기를 지나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 인지적 성숙으로 융통성이 증가하여 고정관념을 탈피한다고 하였으나, 남자 고등학생의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것들이 사회적 관례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유가효, 1994).

성역할 발달에 있어 청년기의 목표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준을 초월하는 양성성 정

체감의 확립이며(Massad, 1981), 성인에게 성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역할들로 규정된다(Williams et al., 1975). 그러나 성 고정관념에 대한 규정이나 개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간을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격특성, 역할특성, 신체특성 및 직업특성 등으로 확장되거나 분화된다(Deaux & Lewis, 1984).

성역할 정체감 발달에 대한 연구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된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시기가 남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시기, 여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고하고 있다(김영희, 1990).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미분화 정체감이 축소되면서 남성은 남성성 정체감, 여성은 여성성 정체감의 비율이 증가되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정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혼합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양성성이 제일 많았으며(남학생 41.1%, 여학생 41.6%), 남학생은 남성성(33.3%), 여학생은 여성성(30.7%)이 많았고 미분화의 비율이 가장 적었다(김남순, 배종훈, 1995). 최근의 연구는 중학생 때 미분화 정체감 집단의 비율이 높았으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양성성 정체감이나 남성성,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아미, 2002). 이 때 남학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여성성 정체감이 증가하는 반면, 여학생은 남성성 정체감이 감소했다. 또한 오윤자(2003)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은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은 양성성 유형이 많았다. 이를 성별로 분류하여 알아보면 남학생은 미분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유형 순으로 여학생은 양성성,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제기되는 중요한 논쟁점은 이미숙(1992)의 연구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양성성을 성숙수준과 관련시킨 발달이론적 관점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성숙에는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의 두 속성의 통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양성성을 발달적 개념으로 볼 경우 발달단계상 여러 단계에 위치한 대상자들에게서 정체감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적 변화보다는 학습이론의 원리가 일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동기를 대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실험한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거둔 연구들(서영숙, 1986; 이지현, 1984; 정소영, 1985; 홍연애, 2001)은 사회학습 원리에 의한 양성성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양성성에 관한 연구에서 김득란(1992)은 양성성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성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양성적인 사람들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사람들에 비해 여러 상황에서 성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능하고, 융통성있고, 더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양성성과 심리적 적응을 관련시킨 연구들은 양성성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과 역 상관을 보이며, 양성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들보다 자존심이 높고, 자신의 표현적 자기통제와 양보적 자기통제에 대해 모두 만족하며,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자아발달 수준 및 창의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Tomboy 연구 또한 전형적인 성역할이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종래의 입장을 반박하는 결과를 제시한다(Bailey et al., 2002). 여성성 유형이 아닌 다른 비전형적인 성역할을 획득한 소녀들은 그들의 자매들 보다 더 남성적이었지만, 남자형제들보다는 덜 남성적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 tomboy소녀들은 인기가 있었고 조력적이며 타인에게 지원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덜 보였으며 리더로 여겨졌다. 또한 동료들과 교사들에게 표현적이기보다는 도구적이라고 비춰졌다(Hemmer & Kleiber, 1981). Tomboy시기를 보낸 여성들은 중년기 회상 연구에서 그 시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보고했다(Secrist, 1996; Sweig, 1996).).

Tomboy 경향성은 자기 주장성이나 자기신뢰 같은 긍정적인 도구적 특성과 관련되지만 사회적 압력의 결과로 사춘기에 사라진다(Burn, O'Neil,, & Nederend,, 1996; Plumb & Cowan, 1984). 여성 3세대, 즉 외할머니, 어머니, 여대생에 대한 tomboy 행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67%가 아동기 동안 tomboy였고, 평균 5.8세부터 12.6세까지 말괄량이 행동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Morgan, 1998). 그러나 소녀들과는 달리 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반대 성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Tomboy와 sissy에 관한 연구(Martin, 1990)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미래의 행동과 관련지어 나타남을 지적하는데, 즉 sissy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아가 남아에 비해 융통성있는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남아의 성역할이 보다 제한적이고 반대 성역할에 대한 거부 현상도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후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정순화, 이경희, 1997).

또한, 성역할 정체감과 적응의 관계는 생활 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Hyde와 Phillis (1979)는 성역할 정체감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종단적 자료는 양성성이 발달적 현상인지, 혹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 때문인지를 (Erdwins, Tyer, & Mellinger, 1983) 알아보기 위해 필요하다. 여기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여성성이 증가함으로써 최상위 연령 집단(61세 이상)에서는 여성성 여성 집단과 양성성 남성 집단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Hyde 등(1991)의 후속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10년 후의 종단연구에서 54%의 사람들이 동일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wenge(1997)는 주요 성역할 검사를 사용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여성들의 남성적 특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들의 남성적 특징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변화가 여성들의 남성적 역할 수행에는 허용적이지만 남성들의 여성적 역할 수행에는 여전히 저항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성역할 개념

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Holt & Ellis, 1998).

한편,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고 사회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한 기본 기술 능력을 제공한다. 학교의 성역할 문화 전달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사회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학교는 일반적 방식으로 사회화할 뿐만 아니라 성역할의 발달에 강력하고 제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은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의도적 무의도적으로 성별 분화를 강조한다(김정자, 1985). 또한, 학교가 (사회의) 성적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한다(임선희,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성역할 정체감의 전체적인 발달 추이를 알아보고, 개인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적응과 시대 변화에 적절한 새로운 성역할 교육의 근거를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과제는 중, 고,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비교 분석하고, 성인 초기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 양상을 1년간의 반복 측정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위의 이론적 개관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계속 발달해가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 고, 대학생의 전반적인 발달 추이를 살펴본 후에,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측정을 통해 성인기의 성역할 정체감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자료는 2003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의 2학년 학생, 그리고 4년제 남녀공학 대학 2개교의 대학생 등 총 649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과목 담당 교사가 직접 수행하였다. 이 중 반응 누락 등 불완전한 응답자 5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표 1과 같이 전체 5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성역할 정체감 분포

		성역할 정체감				전체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남	사례	106	27	107	86	326
	%	32.5	8.3	32.8	26.4	100.0
여	사례	76	132	10	54	272
	%	27.9	48.5	3.7	19.9	100.0
전체	사례	182	159	117	140	598
	%	30.4	26.6	19.6	23.4	100.0

반복측정 연구는 앞의 대상자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C대학교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조사는 2001년 12월과 200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양과목 수강생 302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1년 후인 2002년 12월과 2003년 6월에, 1차 조사의 동일인들에게 e-mail로 검사지를 발송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2차 검사에 응한 인원은 각

시기별 71명과 74명으로 총 145명이었다.

측정도구

성역할 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 속에 남성적 역할이나 여성적 역할과 연합된 특성, 즉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남성성 점수 여성성 점수 각각의 분류 기준점에 따라 표 2와 같이 양성성 유형, 남성성 유형, 여성성 유형,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한다. 성역할 정체감 측정은 정진경(1990)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 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후속연구(김남숙, 정진경, 박광배, 1997)에서 제시한 조절계수와 분류 기준점을 사용하여 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성 점수의 기준점은 4.47이고 여성성 점수의 기준점은 4.29이다.

표 2. 성역할 정체감 검사의 유형 분류

구 분		남성성 점수	
		기준점 이상	기준점 이하
여성성 점수	기준점 이상	양성성	여성성
	기준점 이하	남성성	미분화

이 검사는 남성성 20개 문항, 여성성 20개 문항, 긍정성 20개 문항 등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나의 성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의 1점에서 '거의 항상 나의 성격과 일치하는'의 7점 척도이며, 각 점수는 각각의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다.

남성성 문항(예: 믿음직스럽다, 과묵하다, 자신감이 있다 등)은 여성에게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특성을 측정한다. 여성성 문항(예: 섬세하다, 부드럽다, 깔끔하다 등)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특성을 측정한다. 긍정성 문항(예: 자신감이 있다, 심술궂다 등)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중성적 문항으로, 10개의 부정적 특성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반대로 전환하여 긍정적 특성 문항과 합하여 20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검사의 하위척도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남성성 문항 α=.893, 여성성 α=.869, 긍정성 α=.704로 나타났다.

한편, 반복측정 연구에서는 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하여 약 1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한 결과로 상관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재검사 신뢰도로 간주할 수 있다. 1차 검사와 2차 검사간의 상관계수는 남성성 .754, 여성성 .671, 긍정성 .585이며 모두 유의도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료 분석

측정도구의 문항분석 및 연구문제는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의 차이

표 3.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율 비교 (전체)

학교급		성역할 정체감				전체	$X^2(df)$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중학생	빈도	78	43	37	44	202	29.970(6)**
	%	38.6	21.3	18.3	21.8	100.0	
고등학생	빈도	70	56	40	34	200	
	%	35.0	28.0	20.0	17.0	100.0	
대학생	빈도	34	60	40	62	196	
	%	17.3	30.6	20.4	31.6	100.0	
전체	빈도	182	159	117	140	598	
	%	30.4	26.6	19.6	23.4	100.0	

** $p<.01$

중, 고, 대학생의 연령집단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X^2검증을 실시하였다. X^2검증 결과, 중, 고, 대학생 연령집단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비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학생 집단은 미분화의 비율(38.6%)이 가장 높으며, 여성성(21.3%)과 양성성(21.8%)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미분화의 비율(35.0%)이 여전히 높고, 양성성의 비율(17.0%)은 낮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 양성성의 비율(31.6%)이 더 높게 나타나며, 미분화의 비율(17.3%)은 가장 낮아진다. 이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적 측면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분화는 뚜렷한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성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양성성은 고등학생의 경우에 다소 감소하다가 대학생에 이르러 증가하지만, 남성성의 경우에는 연령집단에 따른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의 변화

표 4는 남녀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의 차이를 보기 위한 분석 결과이다. 먼저, 전체적인 중, 고, 대학생 연령집단별, 성별,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비율에 대한 X^2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연령 집단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 유형, 즉 남학생의 남성성 유형과 여학생의 여성성 유형의 비율이 비전통적 성역할 정체감 유형(남학생의 여성성 유형, 여학생의 남성성 유형)의 비율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여학생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져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남성성 비율(34.3%)과 여학생의 여성성 비율(39.0%)의 차이가 적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남성성 비율(33.0%)과 여학생의 여성성 비율(47.0%)의 차이가 증가하면서, 대학생은 남학생의 남성성 비율이 31.5%인데 반해 여학생의 여성성 비율은 63.9%에 이르렀다. 이는 남학

표 4. 중, 고, 대학생의 성별,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율 비교

학교급			성역할 정체감				전체	$X^2(df)$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중학생	남	빈도	41	4	35	22	102	58.112(3)**
		%	40.2	3.9	34.3	21.6	100.0	
	여	빈도	37	39	2	22	100	
		%	37.0	39.0	2.0	22.0	100.0	
	전체	빈도	78	43	37	44	202	
		%	38.6	21.3	18.3	21.8	100.0	
고등학생	남	빈도	37	9	33	21	100	44.797(3)**
		%	37.0	9.0	33.0	22.0	100.0	
	여	빈도	33	47	7	13	100	
		%	33.0	47.0	7.0	13.0	100.0	
	전체	빈도	70	56	40	34	200	
		%	35.0	28.0	20.0	17.0	100.0	
대학생	남	빈도	28	14	39	43	124	67.659(3)**
		%	22.6	11.3	31.5	34.7	100.0	
	여	빈도	6	46	1	19	72	
		%	8.3	63.9	1.4	26.4	100.0	
	전체	빈도	34	60	40	62	196	
		%	17.3	30.6	20.4	31.6	100.0	
전체	남	빈도	106	27	107	86	326	158.433(3)**
		%	32.5	8.3	32.8	26.4	100.0	
	여	빈도	76	132	10	54	272	
		%	29.5	48.5	1.5	20.5	100.0	
	전체	빈도	182	159	117	140	598	
		%	30.4	26.6	19.6	23.4	100.0	

** $p<.01$

표 5.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율 비교 (남)

학교급		성역할 정체감				전체	$X^2(df)$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중학생	빈도	41	4	35	22	102	15.316(6)*
	%	40.2	3.9	34.3	21.6	100.0	
고등학생	빈도	37	9	33	21	100	
	%	37.0	9.0	33.0	21.0	100.0	
대학생	빈도	28	14	39	43	124	
	%	22.6	11.3	31.5	34.7	100.0	
전체	빈도	106	27	107	86	326	
	%	32.5	8.3	32.8	26.4	100.0	

* $p<.05$

생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양성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계속 여성성 유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양성성 유형과 미분화 유형의 비율에 있어서는, 중학생의 경우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의 비율은 비슷하지만(37.0%, 33.0%), 양성성 유형에서 남학생은 22.0%, 여학생 13.0%로 차이가 커진다. 대학생 미분화 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22.6%인데, 여학생은 8.3%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양성성 유형의 비율은 34.7%와 26.4%로 나타났다.

높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남성성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성의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했다. 아래 그림에 의하면, 미분화는 뚜렷한 감소의 경향을 보이며, 양성성은 대학생에 이르러 많은 증가를 나타냈다. 남성성은 학교급별에 따라 점차 감소한 반면, 여성성은 학교급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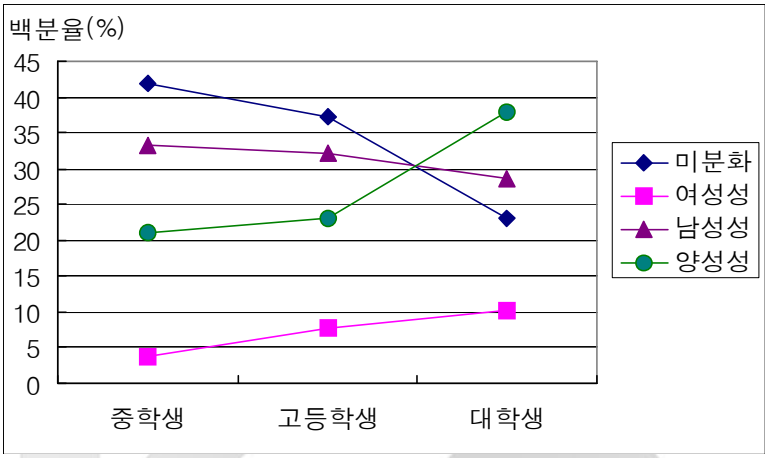


그림 1.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구성비율의 변화추이 (남)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의 변화

구체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남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 (40.2%)과 고등학생(37.0%)의 미분화의 비율이 높고, 대학생은 양성성의 비율(34.7%)이 가장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의 변화

다음으로 연령집단에 따라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성성의 비율이 중학생(39.0%), 고등학생 (47.0%), 대학생(63.9%)으로 학업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성은 극히 낮은 비율(3.7%)로 나타났다. 미분화의 비율은 남학생과

표 6.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비율 비교 (여)

학교급		성역할 정체감				전체	$X^2(df)$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중학생	빈도	37	39	2	22	100	28.120(6)**
	%	37.0	39.0	2.0	22.0	100.0	
고등학생	빈도	33	47	7	13	100	
	%	33.0	47.0	7.0	13.0	100.0	
대학생	빈도	6	46	1	19	72	
	%	8.3	63.9	1.4	26.4	100.0	
전체	빈도	76	132	10	54	272	
	%	27.9	48.5	3.7	19.9	100.0	

** $p<.01$

마찬가지로 중학생(37.0%)과 고등학생(33.0%)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대학생은 미분화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양성성의 비율(26.4%)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 결과를 연령단계에 따라 그래프로 그려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분화는 뚜렷한 감소의 경향을 보이며, 여성성은 꾸준한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양성성은 고등학생의 경우에 다소 감소하다가 대학생의 경우에 다시 증가하였다. 남성성은 연령차에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전체적인 남녀 비교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학생은 중학생이 미분화 유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고등학생은 남성성 유형을 특징으로 하며, 대학생은 양성성 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남학생과 유사하게 미분화 유형을 특징으로 하지만, 고등학생은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을 특징으로 하며, 대학생은 여성성 유형을 대표적으로 나타냈다. 남학생은 여성성 유형의 비율이 적은 양이지만 계속 증가하는 반면, 여학생의 남성성 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은 이러한 성별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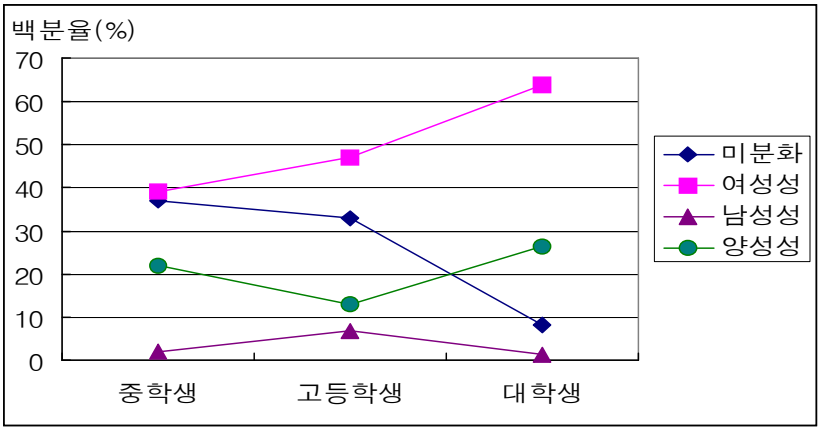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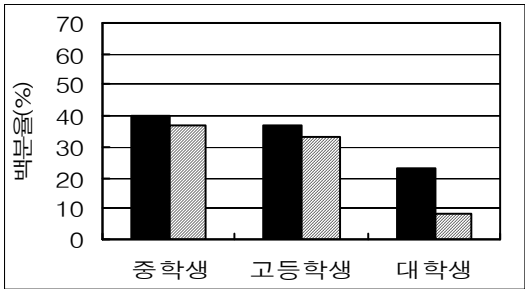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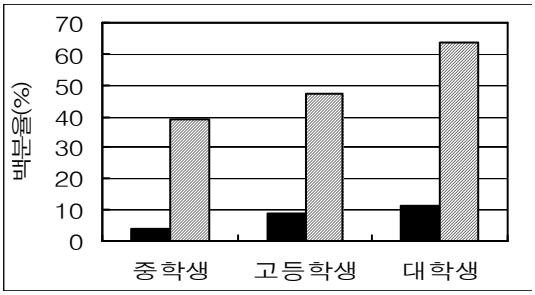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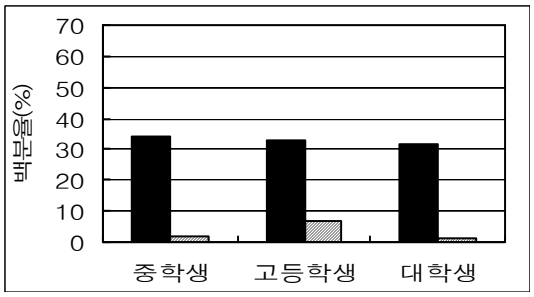
그림 2.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추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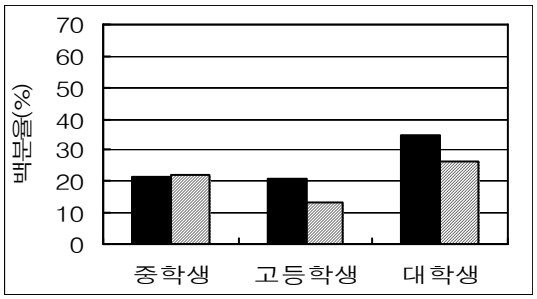
(A) 미분화 유형



(B) 여성성 유형



(C) 남성성 유형



(D) 양성성 유형

그림 3. 중, 고, 대학생의 성별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 추이 (■남 , ▨여)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변화(반복 측정연구)

여기에서는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의 안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년 단위의 반복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1차 검사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2차 검사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차이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검사의 정체감 유형과 2차검사의 정체감 유형의 차이를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차 검사시 미분화 유형의 37.5%를 제외한 62.5%가 2차 검사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였고, 1차 검사시 여성성 유형은 2차 검사시에도 77.4%가 여성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성의 50%, 양성성의 41%가 2차검사에도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에 남성성과 여성성 유형은 2차검사시 반대의 성역할 정체감으로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1차와 2차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같으면 '동일', 같지 않으면 '변화'로 구분하여 X^2검증을 실시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의 57.2%가 동일한 성역할 정체감을 보유하고 있고, 반대로 전체의 42.8%가 변화하였다. 이 중 미분화 유형의 변화 비율(62.5%)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성(22.6%)의 변화 비율은 가장 낮았다. 다음은 성역할 정체감의 변동이 남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표 10에 제시되었듯이 여학생의 변화 비율이 33.0%인데 반해 남학생의 변화비율이 59.3%로 나타나, 남학생의 변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반복측정연구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구성비율의 변화

구 분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전 체
1차 검사	빈도	24	62	20	39	145
	%	16.5	42.8	13.8	26.9	100.0
2차 검사	빈도	20	68	21	36	145
	%	13.8	46.9	14.5	24.8	100.0

표 8.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

			2차검사				전체	$X^2(df)$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1차검사	미분화	빈도	9	10	1	4	24	77.793(9)***
		%	37.5	41.7	4.2	16.7	100.0	
	여성성	빈도	4	48	0	10	62	
		%	6.5	77.4	0.00	16.1	100.0	
	남성성	빈도	4	0	10	6	20	
		%	20.0	0.00	50.0	30.0	100.0	
	양성성	빈도	3	10	10	16	39	
		%	7.7	25.6	25.6	41.0	100.0	
전체		빈도	20	68	21	36	145	
		%	13.8	46.9	14.5	24.8	100.0	

*** $p<.001$

표 9. 반복 측정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변화 양상

구분			1차검사				전체	$X^2(df)$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2차검사	동일	빈도	9	48	10	16	83	41.730(3)**
		%	37.5	77.4	50.0	41.0	57.2	
	변화	빈도	15	14	10	23	62	
		%	62.5	22.6	50.0	59.0	42.8	
전체		빈도	24	62	20	39	145	
		%	100.0	100.0	100.0	100.0	100.0	

* $p<.05$

표 10.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안정 및 변화의 성차

			성별		전체	$X^2(df)$
			남	여		
2차검사	동일	빈도	22	61	83	9.572(1)**
		%	40.7	67.0	57.2	
	변화	빈도	32	30	62	
		%	59.3	33.0	42.8	
전체		빈도	54	91	145	
		%	100.0	100.0	100.0	

** $p<.01$

논 의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비율은 중, 고, 대학생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학생 집단은 미분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여성성 유형과 양성성 유형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의 비율이 높으나, 양성성 유형의 비율은 중학생에 비해 낮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중,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미분화 유형의 비율은 가장 낮아진다. 이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적 측면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미분화 유형의 비율이 높은데 반해, 대학생은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높다. 여성성 유형은 적은 수치지만 학교급별에 따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남성성 유형은 점차 감소한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성성 유형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남성성 유형의 비율은 매우 낮다. 중·고등학생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미분화 유형의 비율이 높으며, 대학생의 경우에 미분화 유형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에 비해 여성성 유형의 비율은 중학생 39.0%, 고등학생 47.0%, 대학생 63.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는 중학생은 미분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 시기에 이미 양성성이나 남성성, 여성성 유형의 성역할로 발달한다는 조아미(2002)와 오윤자(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시기가 남학생은 대학교, 여학생은 중학교라고 밝힌 김영희(1990)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남성성 정체감을 갖는 시기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학생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정체감을 갖는 시기는 고등학교로 나타난다. 성역할 발달에 있어 청년기의 목표가 양성성 정체감의 확립이라고 할 때, 대학생들의 양성적 특징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미분화 유형에서 양성성 유형으로 발달해가지만, 미분화 집단의 발달을 돕기 위한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된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부족한 미분화형이 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모경빈, 1988) 등에서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미분화 유형의 적응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중 고생 모두 미분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남성성 유형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의 꾸준한 여성성 증가현상과 연관지어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된 남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지나친 남성성은 적응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남성들이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여학생의 남성성은 매우 낮은 비율(3.7%)로 나타나, 남학생들은 여성성의 성역할에 허용적인 반면,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여성성으로만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남성적 역할 수행에 허용적인 새로운 사회 분위기라는 Twenge(1997)의 해석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분위기는 여성들의 남성적 역할 수행에 허용적이고 격려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성전형적인 여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일한 맥락으로,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의 양성성 비율이 중학생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tomboy 행동이 사회적 압력에 의해 12.6세 경에 사라진다는 연구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여학생의 tomboy 행동을 비롯한 비전통적인 행동들은 중학생에 이르러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 이르러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학생은 여성성 정체감이 증가하고 여학생은 남성성 정체감이 감소했다는 조아미(2002)와 Karniol 등(1998)의 연구 결과도 유사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성역할 정체감은 남학생은 미분화 유형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남성성과 양성성 유형으로 발달하고, 여학생은 미분화 유형에서 여성성으로 발달해간다. 즉, 여학생의 경우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압력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Tomboy 행동이 성역할 분리로부터의 건강한 일탈의 한 예가 된다면, 여학생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 압력을 벗어나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과 목표가 세워져야할 것이다.

한편, 성인 초기 성역할 정체감의 안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반복 측정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구성 비율은 1년 사이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전체의 57.2%가 동일한 성역할을 보유하고 있고, 42.8%가 변화를 보이는데, 남학생의 변화 비율이 높고(59.3%), 여학생의 변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33.0%). 이는 앞에서 나타난 중, 고, 대학생의 분석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해석 가능하다. 즉, 여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성정형화되어, 대학 시절에도 다른 유형으로의 변화를 적게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양상이 대학 이후에도 계속되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검사시 미분화 유형의 62.5%, 양성성 유형 59.0%가 2차 검사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한다. 이에 비해 여성성 유형은 2차 검사에서 반대의 성역할 정체감으로는 변화하지 않으며, 77.4%가 2차 검사에서도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즉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성과 여성성 유형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적은 변화만을 보인 반면, 미분화 유형과 양성성 유형에서 주된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남학생 양성성 유형의 변화 비율이 높은데, 이는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또한, 반복측정의 연구대상자와 앞서의 분석대상자는 서로 다른 피험자들이지만,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두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 집단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먼저, 발달경향을 본 연구의 대학생들은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의 비율이 17.3%, 30.6%, 20.4%, 31.6%인데, 반복측정 연구의 1차 측정시의 유형별 비율은 16.5%, 42,8%, 13.8%, 26.9%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성 집단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피험자 성비의 불균형 때문이다. 즉, 발달경향 연구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63.2%, 36.7%인데 반해, 반복연구의 성비는 37.2%와 62.7%이다. 성별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두 집단에서 남학생의 여성성 비율은 11.3%와 14.8%이며, 여학생의 여성성 비율이 63.9%와 59.3%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적은 수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일반화된 변화 경향을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1차 조사는 교양과목 수강생 302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 다수 탈락하여 145명만이 검사에 응하였기 때문이다. 54%의 사람들이 동일한 성역할 정체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10년 간격의 종단연구 결과 및 대학시기 동안 확립된 자아정체감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주장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대학환경에서의 이러한 단기적인 변화가 발달에 의한 정체감 변화인지, 혹은 대학환경에의 적응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 다른 사회적 요인에 적응한 결과인지, 또는 이후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본 연구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더 많은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이후 대학 환경을 포함한 대학 졸업 이후의 변화까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정체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분화 유형에서 그 외의 유형 즉, 남성성·여성성·양성성 유형으로 발달해 간다.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미분화 유형, 고등학생은 남성성 유형, 대학생은 양성성 유형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의 미분화 유형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여성성으로 발달해간다.

둘째, 성인 초기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1년 사이에 안정을 바탕으로 한 변화를 나나낸다. 이러한 변화는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증가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이

미분화 유형에서 양성성 유형으로 발달해 간다 할지라도, 각 연령집단에서 나타나는 미분화 집단의 발달을 돕기 위한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1년 사이에 나타난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가 발달적 변화인지, 혹은 대학환경에의 적응과 학년변화에 따른 적응적 변화인지를 해석하기 위해,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변화양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어떤 특성과 사건들이 성역할 정체감의 안정과 변화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학생의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 편중 현상과 더불어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여성성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고등학생 집단에서 나타나는 양성성 비율 감소 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남숙, 정진경, 박광배 (1997). 한국 성역할 검사의 수정점수 및 분류기준 산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77-90.

김남순, 배종훈 (1995). 고등학생의 성역할 유형에 따른 생활적응. 중등교육연구, 7, 168-192.

김영희 (1990).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정자, 임선희, 이영세, 강선혜 (1985).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연구: 발달 및 측정을 중심으로.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모경빈 (1988). 성인환자가 지각한 성역할 정체감과 생활적응과의 관계분석. 대한간호학회지, 18(3), 245-256.

박은옥, 박영숙 (2000).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건강행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3), 362-378.

변명숙, 성옥련 (2000).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특성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61-71.

서영숙 (1986). 국민학교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과 성평등 역할교육에 따른 변화. 아시아여성연구, 25, 185-217.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송은경 (1994).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유형간의 관련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미옥 (1998). 초등학교에서의 학생 역할과 성역할의 비교. 교육연구, 15, 161-181.

오윤자 (2003).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통제소재,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7, 2, 315-330.

유가효 (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에 관한 연구. 계명행동과학, 7(1) (pp. 131-140). 계명대학 교.

유가효, 정영순 (1988).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14 (pp. 121-137).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유계식, 이재창 (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259-288.

이미숙 (1992). 성역할 정체감의 연구방법 및 관련변수 고찰. 생활과학연구논문집, 12(1), 61-89. 성심여자대학교.

이재창, 임용자 (1995). 성역할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여대생의 전통적 진로 유형 및 직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

담과 심리치료 , 7(1), 1-19.
임선희 (2003). 성과 학교교육.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장휘숙 (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정소영 (1985). 의식향상 훈련이 여성의 양성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최임숙 (1991). 성-도식과 자기-도식이 성관련 정보의 처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홍연애 (2001). 비전형적 성역할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분석. 논문집, 19, 339-348. 대덕대학.
Bailey, J. M., Bechtold, K. T., & Berenbaum, S. A. (2002). Who are tomboys and why should we study them?.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1* (4). 333-341.
Bates, J. E., Bentler, P. M., & Thompson, S. K. (1973). Measurement of deviant gender development in boys. *Child Development, 44*, 591-598.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est, D. L., Williams, J. E., Cloud, J. M., Edward, J. R., Giles, H., & Fowles, J. (1977). Development of sex-trait stereotypes among young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Ireland. *Child Development, 48,* 1375-1384.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June)*, 512-526.
Burn, S. M., O'Neil, A. K., & Nederend, S. (1996). Childhood tomboyism and adult androgyny. *Sex Roles, 34*, 419-428.
Cook, E. P. (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Y.: Pergamon Press.
Deaux, K., & Lewis, L. (1984). The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Doesher, S. M., & Sugawara, A. I. (1990). Sex role flexi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22*, 111-123.
Erdwins, C., Small, A., & Gross, R. (1980). The relationship of sex role to self-concep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 111-115.
Hemmer, J. D., & Kleiber, D. A. (1981). Tomboys and sissies: Androgynous children? *Sex Roles, 7*(12), 1205-1212.
Holt, C. L., & Ellis, J. B. (1998). Assessing the current validity of the Bem Sex-Role Inventory . *Sex Roles, 39*, 929-941.
Hyde, J. S., & Phillis, D. E. (1979). Androgyny across the life span: A replication and longitudinal follow-up. *Developmental Psychology , 15,* 334-336.
Hyde, J. S., Krajnik, M. & Skuldt-Niederberger, K. (1991). Androgyny across the life-span: A replication and longitudinal follow-up. *Developmental Psychology , 27*(3), 516-519.
Josselson, R. (1987). *Finding herself :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CA: Jossy-Bass.
Kaplan A. G., & Sedney M. (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Karniol, R., Gabay, R., Ochion, Y., & Harari, Y. (1998). Is gender-role orientation a better predictor of empathy in adolescence? *Sex roles, 39,* 45-59.

Kirchmeyer, C., & Bullin, C. (1997). Gender roles in a traditionally female occupation: A study of emergency, operating, intensive care, and psychiatric nurs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78-95.

Lundeberg, M. A., Fox P. W., Brown, A. C., & Elbedour, S. (2000). Cultural influences on confidence: Country and gende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152-159.

Massad, D. H. (1981). Sex role identity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2*, 1290-1298.

Morgan, B. L. (1998). A three generational study of tomboy behavior. *Sex Roles. 39*, 9.

Plumb, P., & Cowan, G. (1984). A developmental study of de-stereotyping and androgynous activity preferences of tomboys, nontomboys, and males. *Sex roles, 10*, 703-712.

Secrist, J. H. (1996). Voices of midlife tomboys: A narrative study(girls, adolescents,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Stoddart, T., & Turiel, E. (1985). Children's concepts of cross-gender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6*, 1241-1252.

Sweig, T. L. (1996). Yang feminity: girlhood tomboyism and adult women's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acifica graduate institute.

Twenge, J. 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36*, 241-273.

Williams, J. E., Bennett, S. M., & Best, D. L. (1975). Awareness and expression of sex stereotype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35-642.

KC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4. Vol. 17, No. 2, 213-232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Sex-role identity

Im Sook Choi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quire the development of sex-role identity. The study will have its significance for providing a foundation of sex-role education today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598 students consisted of 202 middle school students, 200 high school students and 196 college students. Sex-role identity was measured repeatedly for 145 college students at the interval of one year.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velopmental pattern of sex-role identity is different by gender.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are characterized by undifferentiated type of sex-role identity. However, high school students are represented by masculine type while college students androgynous type.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undifferentiated type is domina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feminine type is dominant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Second, the repeated measure of the sex-role identity shows that a significant change appears in sex-role identity among college students during 1 year. Approximately 43% of the college students have changed their sex-role identity in a period of one year. The undifferentiated and androgynous types show a higher proportion of change than the masculine and feminine types. A future study is expected to answer toward the question of why such changes occur among college students in one year.

Keywords: sex-role identity, sex-role identity development, sex-role education